

# 영암군 '3·1 운동 100주년 사업' 발굴 나섰다

### 항일운동 본고장...사업추진단 구성 범군민 운동 추진



국립 항일운동의 본고장인 영암군이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3·1운동 재현 행사 모습. <영암군 제공>

영암군이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애국심 고취를 위해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1919년 3·1 운동 당시 영암읍 오일시장과 구림 회사정에서 일제에 맞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구국 항일운동의 본고장으로 매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영암군은 정부 및 전남도와 연계해 100주년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념사업추진단을 구성해 분기 1회 정례회를 실시하고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군에서 진행할 100주년 기념사업은

영암정년회와 구림청년회 등 기관사회단체와 연계해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3·1운동 재현 퍼포먼스와 가두행진 등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영암왕인문화축제, 영암읍성 태극기동산 조성, 영암공원 3·1운동 기념탑 주변 정비, 국도 23호선 나라사랑 무궁화 꽃 식재, 독립유공자 유족 문패 달아주기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은 현재 독립유공자 39명을 비롯해 남산 김준연 선생 기념관 시설 등 보훈시설 4개소와 3·1운동 만세시위 장소 2개소를 보유하고 있다"며 "해마다 남산 김준연 선생 추모제와 삼일절 추모제, 8·15 광복절 행사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희기자 jbh@



19일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열린 장흥 총각과 새터민 여성 만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 장흥총각-새터민 여성 '남남북녀' 만남

장흥군이 시골 총각 장가보내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장흥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결혼적령기의 장흥총각과 새터민 여성의 만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흥 총각 10명과 새터민 여성 10명 등 모두 20명이 참여해 핑퐁, 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게임을 즐겼다.

군은 연령과 직업, 결혼의향 등을 고려해 남성 참여자를 선정하고 농촌에 살기를 희망하는 새터민 여성과 남남북녀 만남을 성사시켰다.

19일 편백숲 우드랜드에 모인 남남북녀들은 장기자랑과 커피게임, 이상형 선택 등의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첫 만남의

어색함을 덜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두부밥, 인조고기밥 등 북한음식을 맛보는 이색적인 체험도 가졌다.

우드랜드에서 하룻밤을 묵은 참가자들은 20일 오전 커피 친교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최종 확인했다.

이어 장흥의 관광명소를 둘러본 참가자들은 점심식사를 마친 후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만남 행사가 지역에 결혼 장려 분위기를 높이고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결실을 맺을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영암군 주민참여숲 조성사업 완료

### 석포·명당문화·오복마을 5740 그루 나무 심어

영암군은 학산면 석포마을과 도포면 명당문화마을·삼호읍 오복마을에 추진한 주민참여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들 마을에는 총 2535㎡에 이팝나무와 배롱나무, 영산홍 등 574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영암군의 민간주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나

무를 심고 가꾸어 가는 범군민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성된 마을숲은 주민들의 숲 쉼터가 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마을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맑은 마을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7월 중 있을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희기자 jbh@



학산 석포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숲 조성사업에 참가해 나무를 심고 있다. <영암군 제공>

## 강진농협 정옥태 조합장 대법서 무죄 확정

###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강진농협 정옥태(사진)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20일 강진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형사 제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강진농협 정옥태 조합장의 공판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직후 전임조합장 시절 발생한 대출과 관련 허위사실(대출액 총액, 대손상각액, 불법한 방법의 대출)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장흥지원 1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 2심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지방법



원 형사 1부는 정 조합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기소내역 전체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사건 선거공보 및 문자메시지가 대출액 원리금 총액이 31억인 것처럼 표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임조합장 시절 대출과 관련해서는 "각 대출의 실행 과정에서 농협의 내규 위반이 있었다고 불이 타당하다"며 "전임조합장이 상임이사라는 중책으로 재직 중인 기간에 이 사건의 각 대출을 결재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강진군 '푸소 체험' 감상문·설문조사 이벤트

### 당선작 농산물 쿠폰 증정

강진군은 푸소(FU-SO)체험을 다녀간 학생과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후기 감상문과 설문조사 이벤트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벤트 당첨자는 매달 말일까지 접수분을 심사해 다음 달 5일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하며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

선물로 푸소운영 농가가 생산한 3만~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증정하며 감상문 당선작은 상장과 함께 우수작에 한해 지역신문에도 게재한다. 매월 감상문 당선자 20명과 설문조사 당첨자 5명 등 25명을 선정한다.

푸소체험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감상문은 메일(pan6969@korea.kr)로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보내면 된다.

설문조사 이벤트는 의견을 카카오톡에서 '푸소체험'으로 검색해 플러스 친구에서 주어진 설문조사 양식에 주관식과 객관식에 답하면 된다.

'푸소'는 필링 업(Feeling Up) 스트레스 오프(Stress Off)의 첫 글자를 따 '감성은 올리고 스트레스는 날려 버려라'라는 뜻을 지닌 강진군만의 농가체험 프로그램이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은 영랑강생학교와 강진지역 관광지와 연계해 운영한다.

이준병 강진군 문화관광과장은 "다년간 푸소체험객의 의견을 반영해 더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고 농가교육에도 반영할 계획"이라며 "추석을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 농가에서 찍은 푸소체험 사진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푸소체험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벼농사 5배...작약 장흥농가 소득작목 부상

'작약'이 벼농사 대비 5배 가량의 높은 수익을 내면서 장흥지역 농가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장흥군에 따르면 용산면 송전리 약용작물 재배단지에서 작약재배를 희망하는 농민은 물론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꽃이 아름다워 '함박꽃'으로도 불리는 작약은 관상용으로도 재배되며 뿌리는 진통, 진해, 타박상 등의 약재로 쓰인다.

장흥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지리적으로 농업용수 확보와 농기계 운용이 어려

운 논밭을 대상으로 약용작물 재배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현재 장흥에서만 50여 농가가 작약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40ha에 이른다. 작약은 단위면적 당 수익이 벼농사에 비해 5배에 이르는 고소득 작물이다. 3년에서 4년을 재배하면 출하가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작약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강진 문화뮤지엄 카자흐스탄서 현대민화 특별전

강진군 청자촌에 있는 한국민화뮤지엄은 오는 6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두 달간 카자흐스탄 대통령박물관에서 '한국의 현대민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과 카자흐스탄 대통령박물관 초청으로 열린다.

전시에는 '민수회' 소속 작가 3명이 참여한 민수회는 한국민화뮤지엄에서 매년 진행되는 대한민국현대전과 조선민화박물관이 주최하는 전국민화공모전의 역대 수상자들의 모임이다.

전시는 현대 민화의 세 갈래인 재현민화, 창작민화, 민화공예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능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